

다산포럼

김 황 영
지식칼럼니스트

편집의 비유, 정치인이라는 편집자

'내 글'이라고 느끼게 하려면 편집자는 저자에 '병의' 되다시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저자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어떻게 썼을까."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글은 평범한 저자가 글쓰기 훈련을 받았다면 어떻게 썼을까."

글 쓰기와 글 고치기의 효율적인 분법 속에서 좋은 글이 나온다. 저자와 편집자의 역할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편집권은 크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집권이지 집필권은 아니다.

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독자가 한다. 대한민국이 하나의 글이라면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한다. 정치인과 정당은 집필자라기보다 편집자에 가깝다. 글쓰기가 혁명이라면 글 고치기는 개혁이다. 혁명은 예외적 사건이며 일상 정치는 대부분 개혁의 영역에 속한다.

집권 여당은 '역사와 제도에 대한 편집권'을 가진다. 그러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여당이 편집권을 넘어 집필권까지 가겠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 승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지만 국가 정체성 전반을 다시 쓰라는 위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승자독식제는 선거 이후 정치적 직위와 자원을 독점하는 경향을 지향한다. 이는 정책을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당이 편집 이상의 것을 밀어붙이려 할 때 성과는 대체로 좋지 않았다. 야당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국', '제2의 건국' 같은 구호가 남긴 결과는 공허했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규정하거

나 광복절을 '독립절'로 바꾸려는 시도 역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기보다 특정 방향의 재집필로 익힐 여지가 컸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는 헌법과 선거를 통해 이미 합의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재집필에 해당한다. 사회민주주의를 수용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사회민주주의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자유 쟁론'은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다.

저자가 "이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느끼지 않아야 하듯, 국민이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상황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편집은 상대 진영과 제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편집자나 정치인이 하는 일은 설득이다. 저자와 독자, 상대편 정치세력과 국민·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란 결국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정치의 세계에서도 '의심'과 '존중'이 덕목이다. "이 편집으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까?"를 묻고 다른 정파에 '미리 보여주기'도 실천해야 한다. 여야는 국가와 민족, 국민과 시민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다듬지 않았다. 야당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액션 경이 밝혔듯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편집권도 권력인 이상, 위태롭다. 독자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그 위험을 줄인다.

영화계, 음악계, 콘텐츠 업계처럼 출판계, 언론계에 도 편집자와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의 글을 고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처럼 그들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편집자의 편집 권한은 가끔 '편집 독재권'에 가깝다. 편집자는 글의 구조와 제목, 문체와 분량, 강조와 생략을 책임진다. 한국과 달리 미국 저널리즘 관행에서는 편집본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 언론계의 '미리 보여주기' 관행에도 장점이 있다. 글을 둘러싼 저자와 편집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유능한 편집자는 평범한 글을 명문으로 끌어올린다. 그 과정에서 초고가 원문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많이 고쳐야 좋은 편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편집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합부로 고치지 않는다. 그는 저자를 존중하면서도 사실과 논리를 의심하고 자신의 편집으로 글이 더 명확하고 읽기 쉽게 되는지 의심한다. '의심'은 편집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저자가 "이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 상당히 달라진 글을 접하고도 저자가 여전히

청춘 톡톡

김 부 민
동신대 한의학과 3년

식사는 왜 일상에서 밀려났는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아침 결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식사가 혈당 변동을 키우고 집중력 저하와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식습관은 단기간에 뚜렷한 이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식습관 변화에는 경제적·공간적 요인도 작용한다. 외식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택지는 패스트푸드나 고열량 간편식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직장 인근의 식사 환경 역시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짧은 쉬는 시간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한 끼를 고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식습관은 개인의 기호보다 접근성과 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불규칙하고 편중된 식사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식습관 문제는 개인의 관리 부족이나 선택의 문제로 간단히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끼니를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과 환경보다는 챙기지 않았다는 결론만이 강조된다. 식사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식습관 문제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다. 식습관은 개인의 태도와 함께 이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실천 가능

한 작은 조정이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는 습관을 들이고 배달 음식보다는 집밥을, 편의식이라도 기왕이면 영양을 고려한 선택을 시도할 수 있다.

식사를 일정에 밀려나는 후순위가 아니라 하루의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어도 규칙성과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식습관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식사를 다시 일상의 중심에 놓는 작은 실천이 무너진 생활 리듬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행히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도시락 인증'도 변화의 신호다. 인스타그램에서 '#오늘의도시락'을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진다.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식을 직접 만들고 예쁘게 플레이팅 한 도시락 사진을 공유하며 한 끼 식사도 건강한 삶과 취향을 담은 문화임을 보여준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되고, 내가 읽는 것이 내 마음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흑백요리사' 콘텐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리와 음식은 건강하고, 정성스럽고, 가성비가 좋은 한 끼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돌보는 힐링의 수단이나 취향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취미활동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식습관 변화의 배경에는 생활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각종 대외활동이 겹치며 식사 시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혼자 식사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식사는 공동의 생활 리듬이 아닌 개인의 선택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과 즉석식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빠르고 간편한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청년층의 식습관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세 끼 중 아침 식사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가장 먼저 포기하고 점심과 저녁은 일정에 따라 불규칙하게 해결한다.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경우도 흔하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기준은 점점 흐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일부가 아닌 다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식습관 변화의 배경에는 개인의 관리 부족이나 선택의 문제로 간단히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끼니를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정과 환경보다는 챙기지 않았다는 결론만이 강조된다. 식사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식습관 문제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다. 식습관은 개인의 태도와 함께 이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실천 가능

크, 시베리아, 모스크바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약 1만4000km의 길이다. 이 길은 특별한 모험가만을 위한 노선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도로이며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길이다. 나는 이 사실을 기록과 자료로 증명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질문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길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도 대륙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뀌었다. 왜 우리는 길이 끊긴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현재 나는 제7차 유라시아 대륙횡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여정의 주제는 '길은 평화다! 뉴욕에서 파리, 그리고 한반도 DMZ·북동향로'다. 이 대륙횡단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유일하게 분단된 남과 북의 길이 연결되는 것으로부터 신(新)유라시아 시대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여정은 국제정치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출발해 도쿄, 서울,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 암스테르담, 런던, 파리를 거친다. 이후 북유럽을 지나 북극해 항로, 즉 북동향로를 따라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 DMZ를 통과해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분단된 공간을 연결하려는 사회적 제안이다.

물론 이 여정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026년 1월, 나는 제7차 대륙횡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찾았다.

지난 30여년 동안 나는 대륙횡단 기록, 책 출판과 번역 출판, 전시와 강연, 국제 포럼과 청년 아카데미,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러시아와 유라시아의 길을 소개해 왔다. 이 활동들을 정리해 공적을 만들고,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영상 편지를 준비한 것도 이번 모스크바 방문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모스크바에서 다시 느낀 것은, 이 나라가 서로 다른 공간과 문명을 연결하는 힘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인공지능(AI)과 결합되는 우주시스템, 깊은 지하철, 거미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길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이자 철학처럼 보였다.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온 경험, 그것이 오늘의 러시아를 만든 힘일지도 모른다.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병아리가 깨질 안에서 스스로 깨려는 노력과, 밖에서 어미가 깨질을 두드리는 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한반도의 길도 마찬가지다. 내부의 의지와 외부의 도움이 함께할 때 끊어진 길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우리의 일상이 언젠가는 시베리아

를 지나 암스테르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길을 다시 이야기하는 일은 과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길 위에 선다. 길은 평화다.

社 說

사망 부른 '판독 하청' 안전장치 마련해야

광주·전남 대형 병원들이 환자 동의 없이 MRI와 CT 등 영상 판독을 의료급 1차 병원에 외주를 주는 것은 의료계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간혹 판독 오진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 추적검사를 받던 50대가 1년 전에 이미 갑상선암이 임파선까지 전이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종합병원이 동네 의원에 영상 판독을 맡겨 대리 판독을 한 탓에 발생한 것이다.

2023년에는 광주보훈병원을 찾은 환자가 장 천공에 의한 혼란으로 사망했는데, 그 원인은 진단을 잘못한 것이 원인 이었다. 사망자 유족에게 3500만 원의 핵심금을 지급한 보훈병원은 동네 의원에 영상 판독을 맡겨 대리 판독을 한 탓에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판독 하청에 면죄부를 주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합병원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판독 하청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설혹 사고가 나더라도 돈이 될 든다는 생각을 갖게 해선 안될 일이다. 판독 사고로 인해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가 절실했던 시점이다.

연계 교통망 없어 철도여객 전남 외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내놓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상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42곳으로 전남에선 9개 시군이지만 여행객들이 많이 찾은 상위 여행지 대다수는 타 지역이었다. 전남 시군에선 보성과 장성 정도만 중위권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두 하위권에 자리했는데 이 상품으로 장흥을 찾은 여행객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코레일과 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은 대부분 소멸 위기에 놓인 곳으로 철도 여행객 유치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남 지자체들은 협약만 맺어 놓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 여행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여행객들이 철도를 이용해 전남 특정 시군에 가려고 해도 역에 도착한 후 이동할 연계 교통편이 없으니 찾을 리가 없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은 지자체들은 철도

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시켜 주는 시티 투어버스나 관광택시를 운영하거나 렌터카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전남 지자체들은 오라고 해놓고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니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남원과 충북 영동 같은 곳은 교통 편의 제공은 물론 체험형 콘텐츠를 상시 운영하거나 숙박과 결합한 상품을 구성해 하루 라도 더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전남 시군들은 잘한다는 곳이 고작 지역축제 기간이나 교통편을 찾은 여행객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철도 여행객은 자차 여행객과 달리 연계 교통편이 없으면 아예 찾지 않는다. 요즘 여행 트렌드 또한 개인별로 자유여행을 하는 추세라 여행객들의 동선과 동떨어진 여행상품을 내놓으면 외면받는 것은 당연하다.

소멸 위기가 가장 심한 전남 시군들이 철도 여행상품만 내놓고 무신경한 것은 공무원들의 일관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無 等 鼓

모든 불편과 궁핍이 수레가 없기 때문이 고집되었다. 그럼에도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조선은 길이 구불구불하고 산이 많다며 반대하는 탓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수레가 다니면 길은 자연히 생기는 것으로 수레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국가 경영에서 중요 한 도구"라고 역설한다.

이제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로봇의 산업현장 투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노조를 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24시간 먹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곧 오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말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수레'는 인공지능 로봇이 산업과 일상에 투입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조선 후기 국가 발전을 위해 수레를 도입하려 애썼던 박지원의 노력과 오버랩된다.

/채희종 디지털 본부장 chae@

光 星 日 報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